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예수님의 전도

성경: 누가복음 4장 38-44절

Tag:

38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40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41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앎이러라

42 날이 밝으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44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눅4:38-44)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전도에 대한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제일 먼저 기록된 내용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는 기록이다.

전도는 역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다. 우리에게 아무리 전도에 대한 열정과 책임의식이 있다고 해도, 전도는 역시 성령께 주도권이 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책임과 관심이 있는 것일까? 엄밀히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주도적인 감동에 의해서이다. 전도에 대한 책임과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에게 성령이 아직 전도에 대한 감동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뜻한다. 전도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다는 것부터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셨다는 뜻이다.

다만 감동만 주시지 전도에 대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예수님께는 전도하기 전에 한가지 숙제가 있었다. 그것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것이었다. 금식하시는 이유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주리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음식을 잔뜩 먹고, 마귀를 만나신게 아니다. 가장 약해진 모습을 보임으로 마귀로 하여금 감히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게끔 하시려고 금식하신 것이다.

왜 성경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모든 유혹을 이기신 모습을 기록하였을까? 다름아닌, 가장 나약한 예수님이실지라도, 마귀 정도는 간단하게 물리치시는 분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간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크게 힘입어 갈릴리로 가셨다. (요단강에서 유대광야는 남쪽, 갈릴리는 북쪽. 남쪽으로 가셨다가, 북쪽으로 가심)

-성령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지나가는 마을마다 회당에 들러서 설교하시고, 전도 하셨

다. 예수님은 많은 곳에서 환영 받았다.

-이렇게 환영 받는 이유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지명을 받았기 때문이고, 세례요한은 당대의 가장 톱스타였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명하여 메시아라 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전도자가 된 셈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전도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다.

-전도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교회를 통해서다. 그래서 전도에는 교회의 이름이 들어가고, 담임목사의 이름이 들어간다.

-선린교회는 비록 작지만 성령이 함께 하고, 성경을 바르게 풀어내는 목사가 담임하고 있다는 소문이 중요하다. (모든 보통교회가 다 그러하듯이)

-나는 세상 눈치 보지 않고, 교인들 눈치 보지 않고, 교계 눈치도 보지 않고, 이념 율법주의에 휘둘리지 않는 목사다.

-물론 여러 가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목사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목사다.

-세상에 교회는 많고, 심지어 이상한 교회도 있다.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도 천차 만별이다. 결국에는 자신에게 잘 맞는 교회를 선택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성을 잘 깨닫고, 그 특성을 잘 설명해서 교회로 전도해야 한다.

-물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4영리'는 구원 진리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것을 잘 설명하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은 교회다.

\*16절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고향인 나사렛에 이르렀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다.

-그리고 특히 이사야서에서 자신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예수님의 설교는 은혜로우셨고, 탁월하셨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따졌다.

^목수의 아들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아 온 그 아이가 맞느냐?

^과연 선지자라면 선지자 노릇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벌써부터, 믿음의 눈이 아닌, 존경하는 눈빛이 아닌, 의심의 눈초리, 부정적인 눈초리로 예수님을 대하였다. 왜냐면 다른 동네는 몰라도 우리는 네가 누군지 잘 알거든?

\*예수님은 부정적인 자들 중에 악한 자들이 많다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보통 그런다는 뜻이지, 꼭 그런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이 아닌, 또래들의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비롯된 치기가 회당안에 감돌았다.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마귀는 이때다 싶어 이빨을 드러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누구 눈치보고 할 말 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분위기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분위기다. 이미 나사렛 회당에서부터 시작된 분위기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팩트 폭격을 가하셨다.(한동훈 장관의 주요 무기가 팩트폭격)

\*엘리아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오직 이방 여인 사렙다 과부에게만 엘리아의 기적이 베풀어 졌다.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오직 이방 사람 수리아의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그러자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동네의 낭떠러지여 가서 밀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

-결국 고향에서는 전도하지 못하셨다. 예수님 전도의 흑역사이자, 무거운 짐이셨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전도하셨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사람들이 놀랐다. 왜냐면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향 사람들에게는 없는 경외감이 그들에게겐 있었다.)

-하나님의 기적은 경외감으로부터 시작됨을 명심해야 한다.

-마침 거기 귀신들린 자가 있었는데, 귀신이 분위기에 놀라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그 귀신을 제압하셨다. 나가라고 명령하자 곧 바로 귀신이 나갔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놀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근방에 빠르게 퍼져 나갔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요한과 안드레)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요즘 말로 치면 분립 개척이다.(어떤 목사의 표현)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전도하고, 요한은 형 야고보를 전도했다.(야고보와 요한은 이종사촌지간이다. 마리아의 자매가 살로메,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을 낳았고, 그 아버지는 세베대다. 세례요한은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친인척관계가 많다. 전도는 형제자매, 친인척을 먼저 전도한다.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베드로는 제자로 결단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베드로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처음에는 오락가락 하였다.

-베드로를 제자를 부르기 전에 먼저 시몬의 집에 들어가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아마도 후에 베드로도 그걸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다는 것을 알고서도 크게 감동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고기를 잡다가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히게 된 것을 본 후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구령을 갈망하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한다.

-나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무슨 기적이냐 병고침, 귀신이 떠나감 같은 경험은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성경말씀과 교회생활에 깊이 빠지게 되면서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었다. 사람마다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점은 역시 성령충만이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혼구령의 감동을 불어넣어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인도하게 하소서.

